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청미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인공을 찾아 격려함은 물론 일반인과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참가 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2000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돼 10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10월 31일까지 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는 (주)솔토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시공한 (주)공문교육연구원 Guest House가 국내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00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Guest House 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9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품 26점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 부문 수상작품 13점 등 총 39점이 입상했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총 6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이 중 1차 사진첨심사와 2차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입상작 26점이 선정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전공학생(대학원생 포함), 건축사사무소 종사자(건축사 제외) 등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한국의 텍토닉」이라는 주제로 총 26작품이 응모하여 금상 해당작 없이 은상 2점과 동상 2점 그리고 입선 9점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Guest House의 설계자인 (주)솔토건축사사무소가 대통령상을, 시공자·건축주인 삼성물산(주)건설부문과 (주)공문교육연구원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본상 수상작품 6점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수상작품의 건축주, 입선작 설계자 및 시공자, 계획건축물 부문 입상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 사장상이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축·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 정부시상 확대 등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 발전을 보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응모대상

- 응모작품: 99년 5월부터 2000년 8월사이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응모방법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 × 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스개서 첨부)
- 공동설계작품의 경우 설계자(건축사)명 의는 1인으로 제한함. (설계자간 합의하에 대표자1인 명시, 입상시 대표자 시상)
-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로 출품 가능

작품접수

- 기간 : 2000. 8. 28(월)~29(화)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심사위원

- 원정수(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김병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대표)
- 동정근(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낙중(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윤석우((주)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여흥구(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황상모(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심사일시

- 1차(사진첩심사) : 2000. 9. 15
- 2차(현장심사) : 2000. 9. 18 ~ 22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 2000. 10. 25. (입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수상작 전시회 : 2000. 10. 25. ~ 31.
- 시상식 : 2000. 10. 25.

시상내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비 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와건축탐방	트로피	트로피	-건축사: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 국무총리상
본상(6점)	트로피 해와건축탐방	상패	상패	-건축사, 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대한건축사협회장상
입선작(10점)	상패	-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건축문화발전예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공로상	트로피	-	-	-

수상작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順)

■ **대상**

- GUEST HOUSE/(주)솔토건축사사무소/삼성물산(주) 건설부문/(주)공문고육연구원

■ **본상**

-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금성종합건설(주)
- 웰컴시티/(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삼협종합건설(주)/(주)웰커뮤니케이션즈
- 동아미디어센터/(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대우/동아일보사
- 미제루/(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방철린/범선창건 김정범/김장복
- 영동군 보건소/(주)경영위천건축사사무소 김승희/(주)선임종합건설
- 서미갤러리/(주)테제건축사사무소 유태웅/홍승원/홍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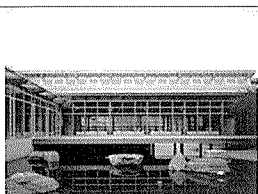
■ **입선**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분당 월드타운 하우스/(주)한울국제건축사사무소 최병천/월드건설(주)
- 교보생명보험(주) 강릉사옥/(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동부건설(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변용/코오롱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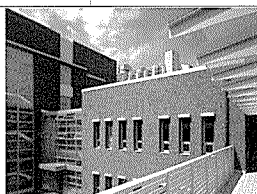
- 양산 신도시 주택공사 아파트/(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고려개발(주)
-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주)아키펀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주)대우 건설부문/금호산업(주) 건설사업부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및 교회/(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현대건설(주)
- 당항포 전시장/이·상건축사사무소 박병철/신우종합건설(주)
- 침성재/토마건축사사무소 민규암/화인 의장건설
- 메탈릭/건축사사무소 (주)아르키움 김인철/유창공사 정근제
- 한양종합기술연구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명 박명화/엘지건설(주)
- 평심정/(주)예공 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주택 이철희, 최선암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C동/(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인사 가나아트센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임상관+Wilmotte & Associates/희훈종합건설(주)
- 비전힐스 골프클럽하우스/(주)맥건축 건축사사무소 박재환/(주)동인건설
- 서울특별시 제2남급당 추모의집/(주)두호건축사사무소 장용호/(유)대광
- 데이콤 사옥/(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시퀀스/(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동규/(주)세진주택 조용희
- 카이 대덕연구소/(주)건축사사무소 모람 김흥수/예림엔지니어링(주)

■ **공로상**

- 대한주택보증(주)
- 오운동/(주)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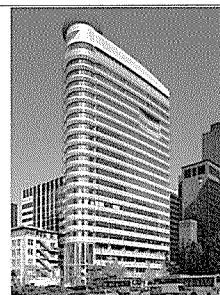
대상 / GUES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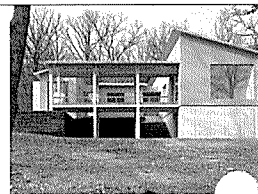
본상 /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본상 / 웰컴시티



본상 / 동아미디어센터



본상 / 인사 가나아트센터

심사평

원정수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심사과정과 작품명

심사방법과 과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과거의 표결방식을 지양하고 공개토론으로 평가선정하기로 하고, 주거부문, 비주거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된 작품계열에서 고르게 배분하여 시상하였던 관례를 깨고, 계열 구분 없이 우수작품 순위를 결정토록 하였다.

우선 1차로 접수된 출품사진 및 도면자료를 심사하여 23점을 선정하고 적부토론을 한 결과 현장답사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선심사에서 입선작을 재조정, 확정하기로 하고 현장답사 심사를 하였다.

현장답사 후보작품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방 멀리 부산까지 연 3일간 심사위원 전원이 강행군 답사하고 최종심사를 공개토론으로 우수작품 7점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격렬한 비평토론을 장시간 벌이면서 Guest House와 웰컴시티 두 작품으로 압축되었고, 두 개 작품성향이 극단적이고 대조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평행되는 차원에서 최종 결론은 건축가의 진지한 열의, 시공내용의 충실한 전문성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 건축주와의 삼위일체의 결실에 대상이 주어졌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경관을 파괴한다는 여론과 부실한 시공에 의한 조잡한 건축으로 사회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를 잠재울 수 있고 건축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싶었던 시점에서 본 대상작품은 바로 시사성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심사위원들은 공감했다.

웰컴시티는 건축가의 철학적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품으로 표출되었다. 한국건축문화를 국제적 위상에서 대변할 한국건축가로 조명되어야할 작품으로 보았고, 동아미디어센터는 열악한 입지환경과 미디어의 첨단 이미지가 잘 소화되었다. 표현적 첨단성과 건축적 내실과의 격차, 독창적 창의성에 관한 토론논란이 많았다. 강화의 주택 미제루는 한국 농촌 자연환경과 건축의 조화를 제시한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성동구 노인회관, 영동군 보건소 두 곳 모두 공공건물로서 시공단계에서 감리대역과 공사부실의 문제 작품이었으나 기존 주변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탈

비꿈시키는 조형과 공간창출이 돋보인다. 한국인의 의식구조개혁의 새로운 시도인 남골당 건축은 정치적 차원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낸 것이었으나 영적, 추상적 공간을 사업적 기능과 생존자의 쾌락적 환경으로 해석되어진 점에 유감을 남겼다.

작품의 경향과 총평

주거건축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게된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택사업투자로 건설하고 있는 기업경쟁의 산물이 심사대상이며, 이는 평면공간, 입면조형이 거의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새로운 창작의지를 살펴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행사의 재정적 후원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한다. 각별히 공동주택의 저가개발의 현실적 애로를 빗자하나 양산 아파트의 경우 배치공간, 주차공간, 현관진입 등 거주자 위주의 해석이 신선하였지만 조경환경은 그림도안 효과위주의 도로 및 테라스 조성 무성의한 식재 등으로 만들어진 단차내 분위기를 여수선하게 격하시킨 점은 전반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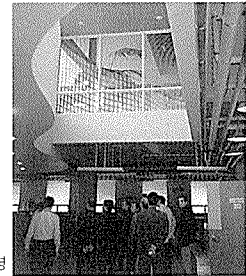
단독주택 작품은 본 상을 받을 만큼 주목같은 내용들이며 경쟁도 치열했다. 그러나 현장의 주위환경과 관련지어서 평가할 때 자연과 마을의 흐름과 단절되고 고립적 마당, 공간을 구성하는 흐름이 크게 눈에 띄었다.

비주거건축 또는 주거공간의 주제를 벗어난 재료의 특성에 집착 또는 다양한 구성언어 등의 연출에 치중하여 지역적인 각본에 몰두하여 도색 되어진 작품 경향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다만 미래의 기대주로 평가되는 건축가의 저력은 어느 때보다 풍작이었다. 심사위원은 현장을 답사하며 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들의 뛰어난 창작능력과 세련되어가는 전문적 세밀한 기교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감동과 감탄을 느끼며 도리어 배움의 기회라고 느끼며 심사의 많은 보람을 가졌다.

출품자의 명의 문제

제출요강에는 출품자 대표 1인으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심사 진행과정에서 거론된 것은 국제협력 또는 외국인 명의 작품인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협력이 이루어지는 현황에서 2000년도 한국건축문화의 척도를 밝히는 행위는 작가의 명의가 세계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외국 건축관계가 있는 작품은 명의를



현장심사망경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심사했다. 차기 응모요강에는 재고를 바라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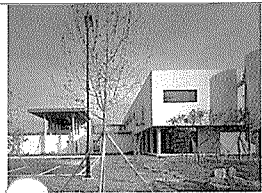
응모작품 제출자료 보완

대부분 출품자료는 심사대상작품의 건물에 한정된 사진 및 도면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 답사 심사를 하면서 주변환경 조건과 괴리되어 독선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작품사례를 볼 때 다음 응모 출품자료에는 반드시 주변환경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진 및 주변 지도자료를 첨부하여야 심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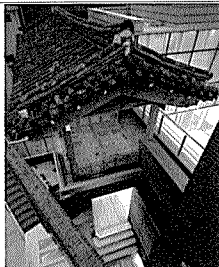
시상종목에 관해서

우수한 작품위주로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입선 작품은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된다. 본 심사를 하여 본 결과 작품의 성공적 결실을 거두는데는 미흡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며 열의가 돋보이는 건축사 또는 현실적 난관을 타개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 특히 헌신적 사명감으로 파격적인 공로로 건축이 실현되게 한 건축주 직책 공적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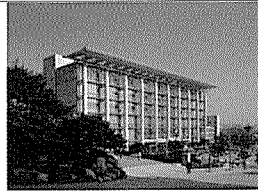
앞으로 이들의 희생으로 건축문화발전의 공헌이 기대되므로 특별, 개인 표창 등의 시상제도 보완이 기대된다.



본상 / 영동군 보건소



본상 / 서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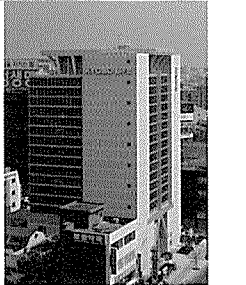


입선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입선 / 분당 월드타운 하우스

입선 / 교보생명보험(주) 강릉사옥



김병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지난 한해에도 IMF 이후의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수준급의 건축을 얼마나 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한 심사였다. 상업건축과 공동주거건축 분야가 어려운 경제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이 분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 제출 작품으로 9개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전국에 걸친 주택시장의 불경기와 이로 인한 사업주의 위축된 사업 의욕은 우리가 지상에만 제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주택 현실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이란 과제에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출품작은 그 탁월한 내용과 건축가의 의지, 치밀한 완성도 등이 돋보이는 것들이 많아 괜찮은 수확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민규암의 침상재, 우경국의 평심정과 방철린의 미제루가 관심을 끌었다. 침상재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내외부 공간, 세심하고 무게 있는 구법과 디테일이 주목을 받았고, 평심정은 작가가 추구하는 내외부 공간의 영역성 설정과 여러 재료의 물성을 만드는 공간의 질 또한 높게 평가 받았다. 미제루는 절제되고 소박한 건축 방법이 시골 마을에 인접한 이 장소에 매우 적절하고 정감 있어 보인다. 중심공간으로 된 안마당 공간의 질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 주택이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 공간 구조를 재현하는 데서 출발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상업 건축물에서는 별 수확이 없었던 반면 비상업용 업무시설에서는 여러 작품이 눈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도심 고층사무소건축으로 데이콤펀트와 동아미디어센터가 수상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다. 데이콤펀트사는 일상적인 도시형 사무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엄격한 기하학의 틀 안에서 만들어 낸 독자적인 외피구성으로 감남에 신선한 가로 풍경을 만들고 있어 보인다. 동아미디어센터는 간결하면서도 유연한 외형, 유리의 투명성을 최대한 살린 세련된 외피 디자인으로 도심 고층건축의 조형적,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건물에서 좀더 독자적인 건축 언어나 디테일 등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한다. 도시내 소규모 건물로 유태용의 서미갤러리가 우리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지역

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기회동에 위치한 이 갤러리 겸 주택을 완성하는데는 오랫동안의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건물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인내와 끈질긴 노력이 낳은 건축물은 우리에게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만남이라는 과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2층으로 피난은 하였지만 상징적으로 보존된 한옥의 일부, 전벽돌이란 전통재료와 유리, 콘크리트판과 금속이란 다양한 현대건축재료와 잘 배합되어 만들고 있는 안마당과 내부공간은 매우 성공적이다. 교육시설, 연구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중에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최성영의 성동구 노인종합복지관과 김승희의 영동보건소가 높게 평가 받았다. 두 건물 모두가 도시 내 공공건물로 건축공간과 외부공간, 도시와의 관계 설정이 뛰어나다. 건물의 성격상 일반적인 공공건물 외관과는 달리 주거의 연장으로서의 공공건물이 되어야 함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공간의 스케일, 공간구조, 건축형식과 재료 선정에까지 세심한 사고와 배려가 그대로 보인다. 특히 영동보건소는 의료시설을 완숙하게 소화하고 있고, 이 작가가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독자적인 건축 형식의 발전도 주목받을 만하다. 솔토건축의 게스트하우스는 작가가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여 건축과 건설이 결합하여 만든 하나의 완성된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조형과 절제된 건축 어휘를 서구식 목구조라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구조와 건설방법으로 철저히 소화하고 있고, 이 방법의 건축과 건설을 집요하게 추구한 건축은 매우 신선하면서 힘찬 영감을 느끼게 한다. 모든 공간의 구성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가의 열정과 세심한 배려는 가히 감동적이다. 건설방법을 깊이 추구하면서도 여기에 지나치지 보니 정신적 공허를 보여 주는 우리 주변의 건축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준다. 승효상의 웰컴시티사옥은 이미 널리 지상에서 발표되어 잘 알려진 금년의 문제작이다. 장충동에 위치한 이 대지의 특수한 컨텍스트에 이 작가는 자신의 건축과, 도시관을 서슴치 않고 꺼내어 보였다.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사로의 건축가가 아니고 우리 자신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 여러 이유로 도착되어 발전되어 온 건축

공간구조의 근원적인 체계에 매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우리의 태도와 사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콘크리트 포디움 위에 4개의 녹슨 철상자는 서구식 효율주의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작가의 비평적 호소이기도 하다. 이번 심사를 끝내면서 느낀점은 심사 과정에서 선정된 수상작이나 그 대상작의 대부분이 지난 몇 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일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일이라도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어려운 문제를 고뇌와 인내로 극복한 작품들로 보인다. 그러기에 건설의 질, 디테일 등 모두가 높은 수준을 보여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한 좋은 생활환경의 창조라는 건축의 역할은 양적인 충족에 급급하면서 물질문화에 찌들어 가는 장소성 부재의 현대도시에서 잊어버린 꿈과 감성을 깨우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2000년도 새로운 밀레미엄을 여는 시점에서 한국 건축문화대상은 종합 문화로서 건축의 위상이 새롭게 확립되길 기대하며 심사에 임하였다. 심사는 거론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문화 대상은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포괄적인 건축행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것,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과 완성까지의 일관성, 주변 맥락에 대한 고려와 공공성에 대한 배려, 거품경제의 산물인 비 합목적적인 건축에 대한 재고, 우리 건축문화의 독자성 혹은 주제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고려한 시사성과 미래지향에 대한 기여도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외국 건축가와 공동설계한 경우 그 사실을 밝혀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심사는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심사평은 지면관계상 심사중 논의되었던 사항별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건축작품은 건축을 향한 모든 선험적 지식을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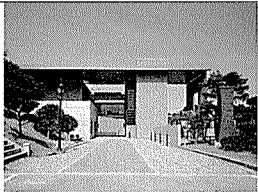
입선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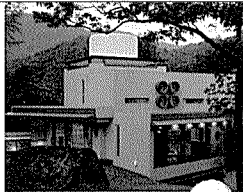
입선 / 양산 신도시 주택공사 아파트



입선 /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입선 / 당항포 전시관



입선

으로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기술 및 지도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수행될 때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현장당사를 통하여 모든 분야가 이제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에서 공사내에서의 적절한 재료나 공법 선택의 미숙함 그리고 감리를 별도 발주하여 미완의 조정 등 건축가의 의지를 마지막 단계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몇 작품들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상공모로 수행된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계획된 거품디자인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품경제의 산물이기도 한 건축에서의 거품은 함목적성을 벗어나 건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공공건축에서 완성도는 낮으나 지역 분위기와 소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동구 노인복지회관이나 영동군 보건소는 건축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입상 작품들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맥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배려 등이 세심하게 반영된 작품들이다. 특히 생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작가의 건축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도시환경의 맥락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을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웰컴시티는 앞으로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2000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건축계에서도 미래를 향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깊은 의식의 환경문제, 도시문제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건축계의 의지를 새로운 세기에 기대해 본다.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심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금년도 건축문화대상의 심사에 대하여, 우선 그 방법 및 심사진들의 열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만큼 본다" 라는 말이 있다. 선정된 작품이 최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또는 최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심사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대답할 수 있다. 모든 심사는 다수결이 아닌 길고 긴지나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졌

다. 건축을 보는 관점도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열린 찬반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좌장적인 원정수선생님의 노력이 돋보였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일반적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의 작품보다 조용히 자기작업에 몰두해온 무명(?)신인들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이는 많은 토론을 통하여 지명도 높은 건축가들의 아우라가 걸러지면서 작품 그 자체의 가치가 부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건축적인 의도가 뚜렷이 보이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완성도는 높으나 상업적 프로그램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탈락하게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상작 중 성동노인복지회관은 주변여건의 문맥 읽기가 비교적 까다로웠을텐데 배치계획에서의 동선 및 미당의 처리, 스케일과 재료의 선택이 적합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시공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건축가가 감리에서 배제된 결과로 보여진다.

서미갤러리는 주택과 화랑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 기능을 잘 소화했으며, 다소 직설적이지만 한옥보전지구에서의 전통과 현대를 병치시키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 작품이었다. 세련된 디테일과 높은 시공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동 보건소는 자칫 딱딱하고 도식적이 되기 쉬운 보건소 건축에 기능적이며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특히 배치에서 대지의 장악력이 돋보였다. 이곳에서도 지역의 소규모 공공건물이 흔히 보여주는 낮은 시공도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웰컴시옥에서는 가로에 대한 저층부의 폐쇄적인 제스처, 다소 도전적인 외벽재료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상층부 매스의 체나눔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작가의 세련된 공간 연출, 분절되어 명료한 디테일과 재료의 물성, 높은 시공의 완성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제루는 저렴한 공사비에 맞는 재료와 공법, 전원 주택이 갖는 자연과의 교감, 전통 요소의 접목 등에서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고층건물 중에서는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이콤 사옥과의 경쟁 끝에 동이일보 미디어센터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게스트 하우스는 건축의 기원적 형태언어를 할 수 있는 목조를 이용한 구조적(tectonic)표

현이 인상적이었으며, 배치 계획과 재료사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대의 패선에 치우치는 현재의 우리 건축상황에서 지역을 초월한 전통적 재료와 구법을 통해 구현된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금번심사를 하면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건물이 실시설계 및 대관인허가만을 담당할 국내 건축가의 명의로 수상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을 문화예술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분명히 외국건축가의 이름을 밝히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이다. 금번에는 이러한 작품들은 실사를 통하여 배제되었지만, 주최측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공모요강에 명시해야 차후로 예견되는 잡음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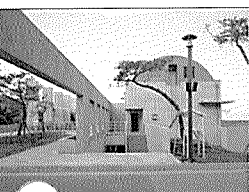
윤석우/(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우리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구현,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 등의 개최목적 가지고 매년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 건축계의 큰 행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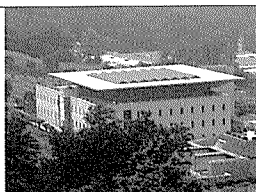
흔히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였듯이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작품들에는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의 모든 시대적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품작은 모두 62작품이며 그중 26작품이 입선되었으며, 그중 대상 1작품, 본상 6작품, 나머지 19작품이 입선작이 되었다. 1차 심사회에서 심사기준이 거론되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여 주는 작품이 "2000 BEST"가 될 것인가? 또 거품이 제거되고, 요즈음의 현상설계 당선된 유형에서 벗어나는 현실성의 추구라든가 또 값비싼 건축, 호화로운 건축에 현혹의 건물이 대략 집약되어, 건축적 완성도, 사회적 기여도(공공성, 환경성), 장소성, 시공성(설계도의 구현) 등을 주요심사기준으로 하였으며, 또 모든 것을 토론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출품된 작품들의 내용이나 성향을 보면 위촉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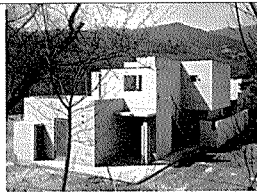
입선 / 비전힐스 골포클립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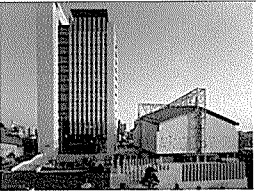
입선 / 서울특별시 제2남골당 추모의집



입선 / 인사 가나아트센터



입선 / 시림스



입선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및 교회

경기 탓인지, 예년과 달리 대형 프로젝트들은 별로 없고, 중소형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테마들이 다양하며, 강한 작품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상당한 수준급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공동주택들이 종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결코 작가들의 수준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몇 개 눈에 띈다.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납골당들이 그것이며, 이들에서는 설계자의 강한 의욕들이 많이 느껴진다. 다만 우리의 모순된 감리제도 때문에 시공중 설계자가 참여할 수가 없어 설계의도의 미완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단독 주택들은 주위환경과의 조화, 소박한 삶의 표현, 강한 작가의 의지, 시공에의 적극참여 등으로 대부분이 수작으로서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동아미디어센터는 하이테크(High Tech)적 이미지를 주는 광화문 일대에서의 Visual Target을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다.

미제루는 주위환경에 순응한 배치와 접근하면서도 실무적이 겸손하고 소박한 전통적인 우리의 마을을 접하는 느낌이며, 서미갤러리는 가회동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에 법적규제를 잘 극복한 예로서 소위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웰컴시티는 도시의 가로에 면한 중소형 빌딩의 하나의 설계기법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포디움 부분(Space Body)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만약 현재와 다르게 처리한다면 현재의 구성(Composition)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상부(Plastic Body)와의 조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부기능이나 관리상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도시인들에게 제공되는 시각적 빈터 내지 실질적인 빈터의 역할을 넘나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Guest House는 교원그룹 도고연수원내에 목조건물로 기존연수원과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서로의 조화를 구가하고 있다. 또 지형에 순응한 형태, 순수한

목구조를 실현시킨 의미, 깔끔한 평면처리 등이 전혀 거부감이 없다.

설계자의 디테일 처리 등의 의도들이 잘 시공되어있다. 이러한 소박한 의미에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와 내부와의 약간의 이질감, 너무 깔끔한 마감처리 등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데이콤사옥이 스트리트월(Street Wall)로 구성되어있는 테헤란로의 표정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상의 대열에 오르지 못한 것이 또한 아쉬운 한 부분이다.

본상에 오른 7작품중 대부분이 중소형 프로젝트들이다. 작가들 또한 중견작가들과 젊은작가들이 골고루 섞여있다. 비록 본상이나 입상이 아니된 작품들중에도 젊은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 건축계는 이들 젊은 작가들 내지 유학파작가들의 파도가 상당히 거세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여흥구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심사대상에 오른 작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은 모든 작품들이 조형성이나 마감처리 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매스구성(massing)이나 조정, 건축물 내외공간의 명료함(clarity), 건축물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중정·마당)의 모양(shape)과 형태(form) 그리고 시각적 명쾌함 등이 돋보였다 할 수 있다.

이번 심사대상에 오른 작품은 대부분 나무(木材), 철강재(steel), 노출콘크리트(exposed concrete), 유리(glass)를 주 소재로 택하고 있었으며 일부 작품의 경우 특수미감재를 사용하였다. 주 소재나 마감재의 선택이 상당히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게 사용되어 건축물의 매스(mass)나 형태(form)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였다.

심사대상작품 중 본인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은 서미갤러리였다. 한옥보존지구에 화랑건물이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 전통가옥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심이었으나 한옥지구의 개발에 새로운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우선 주변환경과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이 훼손됨이 없이 잘 유지되도록 지혜롭게 계획된 작품으로 도로변에서의 느낌은

기존의 한옥들을 압도하지도 훼손하지도 않고 있었다. 특히 중정을 포함한 내부공간은 한옥의 중정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2층에서 보이는 남산의 모습과 푸른 하늘은 상당히 한국적 정취였다. 또한 영동군 보건소는 공간의 배열이 기능적이면서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기존 보건소의 답답함을 느낄 수 없는 작품이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자연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한 환경친화적 배려가 높은 작품이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몇 가지 느낌을 추가한다면 첫째, 조형성은 뛰어나지만 건물이용자나 기능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장식적이며 특이한 공간연출에 집착한 작품이 많았다. 많은 작품들이 “왜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대지나 대지의 주변환경이 갖고있는 조건을 소홀히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셋째, 작품성이 강조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형보존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적 고려와 생태 보존을 위한 계획집근이 충분하지 못한 작품도 아직도 많았다. 넷째,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나 서구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이번 심사대상 건축물중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영동군보건소, 양산신도시주택공사아파트(15평 내외의 임대주택단지), 서울특별시 제2납골당 추모집 등의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작품들이 좋지 않은 설계 조건과 시공여건 속에서도 입상 내지 입상할 수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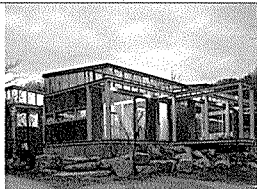
끝으로 웰컴시티와 동아미디어 센터는 한두 가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세한 기본을 주는 도심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입선 / 데이콤 사옥



입선 / 한양종합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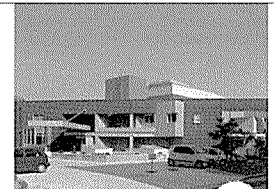
입선 / 메탈릭



입선 / 평심정



입선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C동



입선 / 카이 대덕

응모대상

- 응모작품: 임의 선정한 실제의 대지와 용도에 주제를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응모방법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작품 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하)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한국의 텍토닉

※ 주제설명:

이 시대의 에스페란토는 영어가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동차나 TV조작법은 전달될 수 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의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과 소외, 국가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루소식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9세기 근대적 건축재료와 기술이 발전하고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건축과 기술은 한편으로는 의존적이면서 다른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근대건축은 기계문명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면서 기계미학을 자신들의 주요 건축언어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결국 체제의 견고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의 양면성을 간과한 나머지 형태적으로밖에는 근대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유포피아 지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건축은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기계를 직유법적으로 건축 형태언어에 도입하는 하이테크 건축은 물론이고, 매우 형태자율적인 해체주의 건축구조차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컴퓨터 공학과 기계공학을 도입한다. 건축은 기술을

통하여 현실화되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건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건축과 기술의 관계를 애매하게 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건축과 기술 문제에 대한 근대 이후의 질문은 아직도 확실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기술을 건축의 중요한 메타포로 삼는 촉과 기술을 건축의 종속적인 것으로 삼는 촉의 대립만이 존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하이테크나 해체주의의 첨단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이미 보편언어가 된 기술을 한쪽편에 밀어두고 건축만을 말하는 것 또한 우리 건축이 세계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과 기술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설계내용

임의의 건축물 혹은 구축물을 설계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

- 1) 구조, 재료, 환경, 건설공법, 설계기법 등의 기술적 분야에 있어 한가지 이상의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것.
- 2) 이러한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인해 건축적인 질, 즉 형태미, 공간감, 거주성 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를 표현할 것.
- 3) 기술적 내용이 형태적 요소로만 쓰이거나 건축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피하고 건축적 내용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4) 도시내의 건축(구조)물임을 감안하여 도시의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
- 5) 시대적 및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것.

※ 대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내의 대지를 작가 임의 선정(건축)하거나 혹은 기존 건축물이나 구축물(중개축)을 대상으로 할 것

※표현방법

가급적 평, 입, 단면도 및 투시도 등의 전통적인 평면식 표현방식을 지양하고 3차원적 표현방식으로 공간, 구축 방식, 건축적 및 기술적 효과를 표현하도록 할 것.

작품접수

- 기간: 2000. 8. 31(목)09:00~18:00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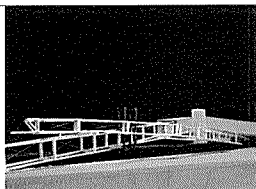
- 김영웅(대한건축사협회이사, (주)진원건축대표)
- 장양순(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 최동규((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함인선((주)인우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형우(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성우(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이강업(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시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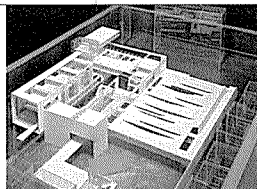
- 금상 (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하여 영어 인터뷰시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학생잼버리 대회 파견 특전 부여

수상작 명단(작품명/설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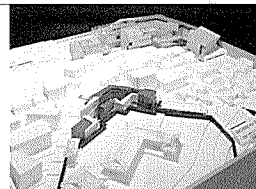
- **금상**
(해당작 없음)
- **은상**
 - Another Layer.../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최기호,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3년 최혜련
 - 백제유적사관계획안/명지대학교 건축학부 4년 문성훈
- **동상**
 - 한국정치사 갤러리/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김관준·윤종호,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하경우
 - Printing, Publishing center/명지대학교 건축학부 4년 김지훈
- **입선**
 - 노량진수상시장 계획안/건축사사무소 전이 정승영
 - 가회동 촉각의 공간/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4년 김영옥·엄지숙
 - 길과 연음/국립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명훈·전효찬·조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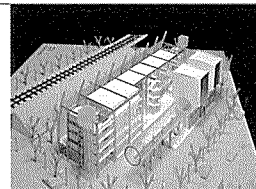
계획부문 은상 / Another Layer



계획부문 은상 / 백제유적사관 계획안



계획부문 동상 / 한국정치사 갤러리



계획부문 동상 / Printing and Publishing Center in Mapo

- Essence/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계획대학원 장용태
- Sculting, Painting and making shelter in city-wall/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서동수·박주영, 동의대학교 건축학부 3년 류현미
- Re-write/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박진아
- 전통건축연구소/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박종철, 정세영, 이소영
- Architecture-Eco symbolique/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김용진
- Architecture in baukunst/이오콘설단트 건축사사무소 양승봉,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조제훈·박경란

심사평

김형우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계획 건축물 부문의 작품주제인 한국의 텍토닉(Tectonic)은 텍토닉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광의성과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주제의 해석에 따라 응모자의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근대건축은 새로운 재료의 물질적인 진실로부터 사유를 통합하지 못하고 현학적인 비 물질화로 예술영역에서 차지하는 고유성을 상실함으로써, 이념이나 미학적인 개념의 표현 도구로 관념화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건축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서, 건축을 물리적인 실제로 인식하려는 구축(構築: Tektonik, Tectonic)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폭되었다.

Masco Frascari는 구축의 의미체계와 관련하여 2가지 단계를 순수한 구축적 의미(Constructing detail/ meaning)로서 재료 및 구조의 진실성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Constructing meaning)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축은 물질을 기반으로 그것의 구축행위를 통해 형성되며, 구축의 의미는 물질과 물리적 실재인 결과물로서 건축에서 존재하며, 구축의 형식의 구조적 합리성과 유용성, 재료의 적응성의 발현과 관습적 기술의 진전

을 통해 다듬어진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구축의 형식 속에 물질에 대한 태도, 기술에 대한 인식, 전통적 전형에 대한 해석 등에 함입된 건축가의 정신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논의와 탐구는 정신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체득되는 감각을 정신과 일체화시킨다. 최근의 텍토닉에 대한 많은 논의는 건축의 실재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보다는 건축 외적인 요소인 예술, 철학, 이념, 미디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건축의 그 개념적인 사유에 종속되어 건축의 본질적인 실체로부터 유리되어 현실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됨으로서, 건축의 전통적 가치와 물리적 실존성에 대한 부정에서 배제되는 무력감은 실제적이며 구축적인 건축 작업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개념'으로 담론화 시킴으로서 현대 건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자각을 환기하였다. 이러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이 사고나 이념의 산물이라는 관념론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건축이 사회 및 문화현상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물리적 구축체라는 실재론적 관점에서 물리적 실체로서 건축을 구성하는 주 요소인 재료와 구축의 형식을 건축의 주된 논의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계획건축부문의 주제로서 "한국의 텍토닉"이 지나는 비평적 인식과 관심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과 기술의 적절한 관계로서

- (1) 구조, 재료, 환경, 건설공법, 설계기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
- (2) 기술적 고려가 건축적인 질인 형태미, 공간감, 거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며,
- (3) 기술적 내용이 형태나 건축에 종속적인 사용을 피하고 건축적 내용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4) 건축이 세워지는 도시의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 (5) 우리의 시대에 적용 가능하며, 적절한 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표현하여 설계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지난해에 본 건축전이 개최되지 않았던 관계로 응모자가 충분하게 본 건축 주제를 단기간에 해석하여 준비하는 것은 미흡하였다.

심사위원회는 계획건축물부문의 건축주제와 심사에

관한 것을 논의하였으며, 출품작이 26작품이므로 심사위원들이 충분하고, 섬세하게 응모작의 주제의 해석과 기술의 적용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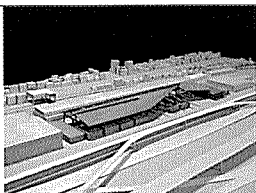
심사의 과정은 1차로 심사위원 7인의 과반수인 4인 이상으로부터 투표(投票)를 받은 10작품을 탈락시켰으며, 2차로 4표를 받은 작품 중 3작품을 탈락시켜 입상권에 오른 과반수의 작품인 13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기로 하였다. 5작품을 수상권에 추천키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로부터 득표를 한 4개의 작품을 선정한 후, 먼저 동상으로 추천할 2작품을 결정하였고, 작품의 주제 반영, 표현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다. 심사위원들은 주제를 충분하게 반영하면서도 심사위원들로부터 각자의 심사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표결보다는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뛰어난 표현력과 설득력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데는 주저하였다. 은상이상으로 오른 두 작품의 커다란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택주제의 충실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2작품을 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상수상작은 이번 "한국 건축문화 대상전"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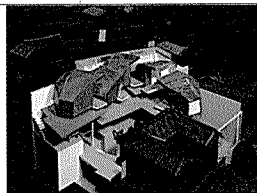
은상에는 Another Layer(한양대 대학원, 숭실대)와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명지대)을 동상에는 한국 정치사 갤러리(인하대 대학원,, 학부) printing, publishing center(명지대)입상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계획안 외에 8작품을 선정하였다.

은상에 선정된 Another Layer는 2개의 Passage Route를 Twisting하여 보행자의 통로와 상업공간과 휴게공간을 존으로 설정하여, 구조체가 공간 설정과 일치하면서도 유연하게 보행자의 진입과 관통이 유기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였다. 홍익대 입구에서 당인리 발전소로 이르는 구 철길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나, 주변의 맥락적인 관점과 제반의 건축적인 해결에는 미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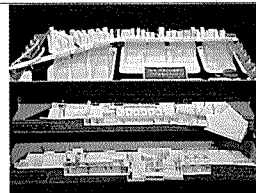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은 최근 몽촌토성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백제 유적이 노출되어 건설에 물의를 빚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계획안으로 유적지 상부에 거대구조의 박물관을 건립하면서도 띄워진 구조체 내에 전시관람 통로를 만들고 틈을 이용하여 채광 등을 해결한 것은 매우 우수한 구조적 설정이었으나, 본 전시주제에 적합한 출품작인가에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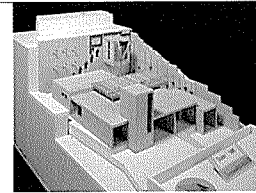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노량진수산시장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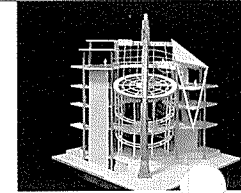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가회동 축가의 공간



계획부문 입선 / 길과 언음



계획부문 입선 / Architecture in baukunst



계획부문 입선 / Architecture-Eco symbolique

동상에 선정된 한국정치사 갤러리는 가회동 윤보선 씨가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이 지역에 물지각 한 다가구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역사적인 장소성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제안은 참신하고 그 표현력도 뛰어났으나, 구조적 관점과 공간과의 통합성 어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Printing Publishing Center는 마포의 철길 주변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출판, 인쇄, 정보 및 전시를 High Tech한 건축디자인으로 해결한 평범한 건축적 제안이었다. 텍토닉한 관점보다는 기술에 치우쳐진 계획안이었다.

입선에 오른 대부분의 작품들이 본 전시회를 위해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작품의 진행중 본 전시 주제에 어느 정도 맞춰 출품한 것에는, 전시 개최의 일정과 공모 주제의 홍보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건의를 드린다.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본연의 특징들이 뚜렷하게 부각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전시회의 준비에 애스신 실무 진행위원과 심사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 감사드리며,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발전을 기원한다.

함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건축적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도구의 개념으로서의 기술(Technology)과 구축의 방식과 재료의 실재성이 건축 표현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하려는 텍토닉(Tectonics)과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종종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건축 공간과 형태를 가능케하거나 심지어는 창조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달한 컴퓨터 기술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정형적인 건축형태를 설계-시공하는 것을 가능케할 뿐더러 작가가 예기치 못한 공간 및 형태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근대건축의 특징적 공간인 큐빅 스페이스의 발생기제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적 건축 재료인 철과 철근 콘크리트라는 강한 재료와 공법에 의해 직교형 입체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한 재료인 돌이나 목재 등으로 구축된 건축에서는 구조적 논리가 건축의 내용을 규정한다면 강한 재료는 구조의 논리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킨다. 이로써 건축은 무한한 자유를

얻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은 더욱 추상화되고 비실재화되는 길을 걸었다. 말하자면 당초부터 텍토닉했던 건축은 이제 건축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기술은 건축의 수단 내지는 도구로 바뀐 것이다.

근래에 텍토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근대건축의 모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날로 분부시게 발달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인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한면에서는 기술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기계적 이미지를 건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해체주의를 표방하는 일군의 작가들은 분명 첨단 기술의 자신들의 건축 생산의 도구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성'이 나타난다고 보다는 '생성'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미 이 것은 건축과 기술과의 당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체제 혹은 발주자측과의 이해관계가 주요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로 '텍토닉'을 정함에 있어 굳이 '한국적'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까닭도 이러한 연유이다. 즉 건축과 기술의 재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로서의 '텍토닉'이 주제어가 되었다면 당초부터 체제 지향적일 수 밖에 없는 기술의 속성상 지금, 이곳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전의 출품작들의 면면은 바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건축에 통합되지 못한채 테크놀로지과 건축의 내용이 병렬되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설사 상당히 통합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에서조차 '한국적'이라는 과제를 충분히 소화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주제가 아직은 기성 건축계에서조차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징표라 할 수 있겠다.

동상 이상의 수상작에 국한하여 평을 하자면 금상을 수상할만한 작품을 찾지 못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주제 의식의 명확성, 작품의 완성도 등에서 흠족할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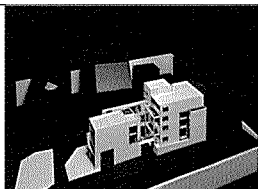
Another Layer는 일괄재개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overhanging structure를 도입

하려 한 시도, 구조물의 특성 상, 기둥을 최소화해야 했으므로 이 문제를 pre-torsional 공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기술적 시도 등은 높이 평가할만 했으나 선형공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약점과 주변 도시 공간 구조와의 연관문제 등을 해결함에 있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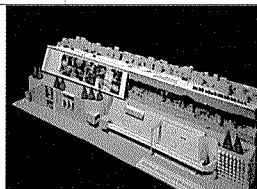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은 매우 시의적인 주제이고 건축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돋보이며, 특히 발굴터를 경험하는 방식을 떠있는 슬라브라는 장치를 사용하기로 한 점 등이 점수를 얻었으나 거꾸로 이 떠있게 하는 구조말고는 주제에 부합하는 요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흠결사항이 되었다.

동상으로 선정된 한국 정치사 갤러리와 printing, publishing center 역시 주제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술적 요소가 건축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나름대로 차별성있는 주제와 건축 구성을 이루어낸 점 등이 평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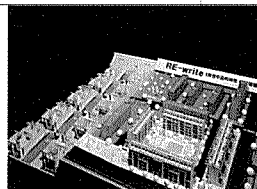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주제이며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품작의 양적 질적 수준은 주최측 및 심사위원들의 기대에 썩 부합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건축사회의 의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출품한 여러 예비 건축가들의 열의와 노력이 향후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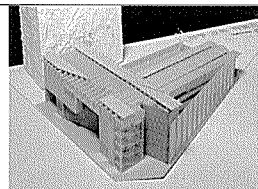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Essence



계획부문 입선 / Sculpting, Painting and making shelter in city-wall



계획부문 입선 / Re-write



계획부문 입선 / 전통건축연구소